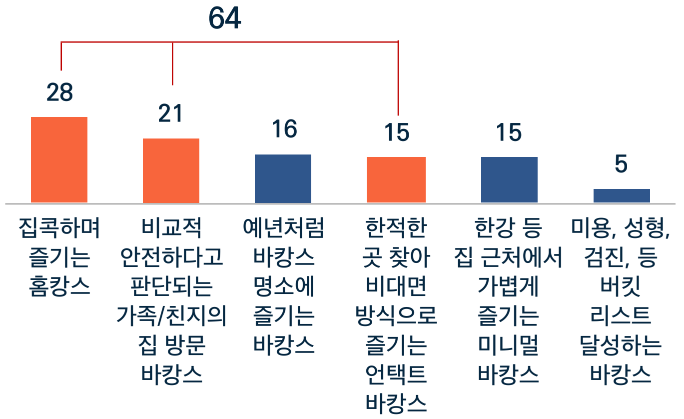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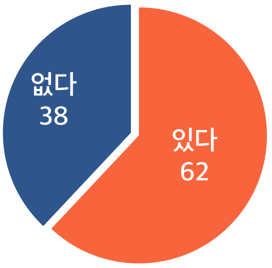
올 여름 휴가,
코로나19로 인해 ‘안전한 바캉스 선택’ 64%

- 올 여름 선호하는 바캉스에 관해 질문한 결과, ‘집콕하며 즐기는 홈캉스’가 28%로 가장 높았고 ‘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족/친지의 집 방문 바캉스’ 21%, ‘한적한 곳 찾아 비대면 방식으로 즐기는 언택트 바캉스’ 15%로 나타나, 전체 응답자의 64%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성을 중시하는 형태의 선호도가 높았고, ‘예년처럼 바캉스 명소에서 즐기는 바캉스’는 16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
- 올 여름 바캉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‘있다’ 62%, ‘없다’ 38%로 나타남

[그림] 올 여름 선호하는 바캉스 형태 (%)



[그림] 올 여름 바캉스 계획 유무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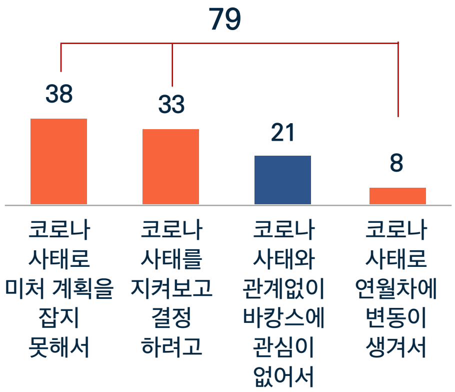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 아무튼주말, ‘홈터파크 물놀이, 홈시어터 심야영화... 올 여름은 홈캉스가 대세’, 2020.06.27.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26/2020062603021.html (전국 20-60대 성인 남녀 5,038명, 온라인 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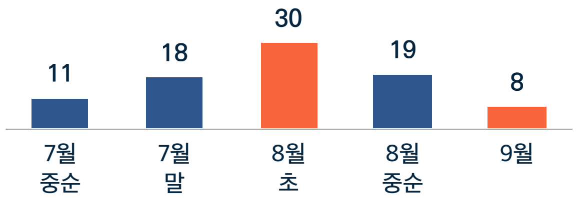
● 바캉스 계획이 없는 이유, ‘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’ 79%

- 바캉스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, ‘코로나 사태로 미처 계획을 잡지 못해서’ 38%, ‘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결정하려고’ 33%, ‘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바캉스에 관심이 없어서’ 21%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, 코로나가 바캉스 계획에 영향을 준 응답 비율이 무려 79%나 됨
- 반면 바캉스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희망 기간을 물어본 결과, ‘8월 초’가 30%로 가장 높았음

[그림] 올 여름 선호하는 바캉스 형태 (%)



[그림] 올 여름 휴가 계획 기간
(바캉스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)
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 아무튼주말, ‘홈터파크 물놀이, 홈시어터 심야영화... 올 여름은 홈캉스가 대세’, 2020.06.27.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26/2020062603021.html (전국 20-60대 성인 남녀 5,038명, 온라인 조사)